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벤쿠버 한인회와 업무협약체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9월 1일 캐나다 벤쿠버 한인회와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양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공동사업, 헬스케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의료관광 및 교류확대를 위한 공동회의, 편안한 환자진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타 의로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담고 있다.

협약에 기초하여 벤쿠버 한인회에서 협약내용을 현지 신문에 홍보하였으며, 본원은 한인록에 병원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향후 세부적인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장이 방한할 시점에 맞추어 협의할 예정이다.

02 사상체질식단 개발

사상체질과에서는 영양팀과 협력하여 10월 1일부터 사상체질 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상체질식은 각 체질에 따라 적합한 음식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여 식재료를 체질에 맞게 구성해 제공하는 특식으로, 사상체질식을 통하여 내 몸에 맞는 식단의 패턴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조절하면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상체질식의 처방은 사상체질과 외래에서 체질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체질결과에 따라 각 환자의 주치의가 처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치료식이 필요하지 않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03 제 2회 식사동 어울림 모꼬지 의료지원

동국대학교병원은 9월 14일 위시티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식사동 어울림 모꼬지’ 축제에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5월 제 1회 행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나눔의 장, 체험마당, 문화·예술공연, 주민참여마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주민참여마당은 주민들의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으로 축제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본원 의료부스에서는 약 40여명이 의료체험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역 주민들이 주민간의 우호를 다질 수 있도록 본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04 옥외채널사인 환경개선공사 시행

시설관리팀은 2007년 설치된 기존 옥외채널사인물 철거 후 측면 LED조명, 엠블럼 신규 설치 및 듀플렉스필름을 교체하는 옥외채널사인공사를 8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했다

바뀐 사인물은 주간에는 파랑색으로, 야간에는 친환경소재인 LED조명이 사인물을 백색으로 바꾸게 하여 병원외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본원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동국대학교병원 사거리에서는 보는 본원의 멋진 야경은 오고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으며, 야간 식별성이 크게 개선되어 병원을 처음 찾는 내원객들도 편리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소감문 당선작

봉사를 통해 만나게 된 좋은 인연

백마고등학교 2학년 이수현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부서배치를 받았는데,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병동에 배치되고 싶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사회사업실로 배치 받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학생자원봉사 진행 보조 활동을 하며 병원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병원이라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5일의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일주일 후에 동국대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봉사활동 할 때 대화를 나눈 적 있는 성인자원봉사자님을 만났는데, 아파서 병원에 온 저를 걱정해주시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시는 봉사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봉사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병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을 알게 되어 정과 보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매주 봉사활동은 어렵지만 매년 방학기간이라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정처 없이 종적을 건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르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이번 주 톡톡 인터뷰는 외래환자들의 공간 어디서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홍길동처럼 나타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간호부 외래수간호사 오미정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특수간호팀
오 미 정

- **본인 소개?** 70년 3월생, 고향은 대전, 일원동 삼성병원 개원 멤버로 일하다 우리병원 개원 준비를 위해 2005년 3월에 입사한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오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 **많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그림 그리는데 좋아해서 민화 그리는데 푹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컸다고 좀처럼 따라 다니질 않으려하네요~ 호호호
- **여자가 운행하기 힘든 덩치가 큰 SUV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처음부터 SUV차량을 운전 했던 건 아닌데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안전을 걱정하셔서 SUV로 바꾼 이후 계속 덩치 큰 차량을 운전하게 되네요~
-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외래의 진료공간은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들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가끔 서운하게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맺음말?**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늘 엄마를 긴장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병원을 찾는 분들 또한 우리 아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내원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병원은 고객이 찾는 최고의 병원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알 리 미

월정사 의료지원 일시 : 9월 30일 ~ 10월 1일

동산유치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일시 : 10월 4일 10시

